

여자 비뇨기과 의사 (여자도 비뇨기과 가나요?)



이윤수 명동 이윤수비뇨기과병원 원장

필자의 병원에서 여자 비뇨기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여자가 비뇨기과에 가는 일도 있나요?, 비뇨기과는 남자만 가는 곳이 아닌가요?’, ‘혹시 여자 선생님도 남자 환자를 보나요?’ 하는 질문도 받는다.

그렇지 않다. 여자도 비뇨기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비뇨기과하면 연상하는 것이 성병 혹은 남성들이 성기수술을 떠올린다. 물론 최근에 와서 발기장애·조루 등 성기능 장애나 성기확대 수술들을 하다보니 인식이 그렇게 된 경향도 있다.

그러나 비뇨기과란 원래 소변을 만들어내는 콩팥에서부터 요관, 소변 저장고인 방광, 요도의 이상을 보며 거기에 남성 생식기를 추가로 보는 곳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도 소변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비

뇨기과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비뇨기과 질환으로는 방광염, 요실금, 과민성방광 등이 있다.

물 한방울이 수도꼭지를 통해 나오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곳들이 많다. 한강물을 끌어당겨 지저분한 부유물들을 걸러내고 소독을 거쳐 수도관을 통해 가정 내까지 이르게 된다. 소변도 신체 내의 불필요한 대사산물들이 콩팥을 통해 걸러지게 된다. 걸러진 소변은 요관을 거쳐 방광에 이르렀다가 소변이 차게 되면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 수도관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듯이 오줌 나가는 길에 문제가 되면 곤란한 일들이 생겨난다.

콩팥, 방광, 요관, 요도에 감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요로 감염증이라고 한다. 방광염은 오줌소태라고도 하며 요도가 세균에 감염됨으로써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장균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도 포도상구균 · 연쇄상구균 · 입균 · 결핵균 등에 의한 경우도 있다. 대장균은 소화관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면서 장 질환과 요로 감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한 음식물이나 대변과 관련이 있는 대장균이 소화기계 질환을 자주 일으킨다면, 요로 감염증은 대부분 환자 자신의 방광에 세균 감염으로 인해 온다.

원래 방광점막은 세균에 대해서 비교적 저항력이 강하다. 그러나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가 생겨 소변을 제대로 외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에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상태가 된다. 요로 감염증의 주요 증상은 소변을 눌 때 아프거나(배뇨통),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빈뇨), 소변을 봐도 무지룩하고 따갑고, 심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도 하는 병이다.

요검사에서 병원균이 판명되면 화학요법으로 쉽게 치유된다. 방광염에 잘 걸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대변에서 나온 대장균에 자가감염이 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과민성방광은 최근 질환의 개념이 정립된 복합적인 증상이다.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에 고이는 동안 방광이 비정상적으로 자주 수축하므로 불편

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소변이 자주 마려운 빈뇨, 소변을 참기가 힘들어 급히 화장실을 가야 하는 절박뇨, 소변이 마려울 때 충분히 참지 못하고 소변이 새서 옷을 적시는 절박요실금, 야간 수면 중 2회 이상 소변을 봐야 하는 야간 빈뇨 등의 증상들이 있다.

요실금이란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하며 복잡성 요실금이 많다. 복잡성 요실금이란 크게 웃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등 배속의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를 말한다.

성기능 장애란 정신적 · 신체적 이상에 의하여 정상적인 성관계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는 성욕 장애, 오르가즘 장애, 성교통, 질경련 등이 포함된다. 최근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왔다. 과거에는 발기 장애란 단순히 나이를 먹으면 오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치료방법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치료를 해야하는 질병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반면에 여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경우에 따라 여성은 자신이 성적인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기도 한다.

과거에는 여성 성생리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심리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그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3~4년 사이에 남성의학을 하는 의사들에 의해 여성 성기능 장애가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기능 장애에 대한 기질적 문제를 파악하여 치료 방법에 많은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도 여자 비뇨기과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다. ㉞